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① 03. ① 04. ③ 05. ⑤ 06. ③ 07. ⑤ 08. ③ 09. ⑤ 10. ①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④ 16. ② 17. ④ 18. ④ 19. ② 20. ③

### 1. 노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노자이다.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 제도로 보았으며 무위자연을 이상적인 삶의 원리로 보았다. 노자는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 무지, 무욕의 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사악하다고 보지 않았다.
- ② 정명(正名)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 사상가는 공자이다.
- ④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은 유교의 입장이다.
- ⑤ 노자는 인위적인 물질문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소박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을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국가를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보았으며 국가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루는 세 부분, 즉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플라톤은 지혜는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덕이라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로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인 덕을 통한 행복 실현을 강조하였으며 행복이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고 보지 않았다.
- 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인간은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았다.

### 3. 공자와 순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공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인(仁)과 예(禮)를 강조하였다. 공자에 따르면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인이 이루어진다. 그는 예가 도덕적인 삶에 필수적이며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공자는 예의 실천에 있어서 인간에게 내재된 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③ 순자는 고대 성왕(聖王)이 제정한 예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예치 사상을 주장하였

다.

④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악하다고 보았다.

⑤ 공자와 순자는 모두 백성의 생업 문제 해결이 예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지 않았다.

#### 4.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수정 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이고, 을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ㄱ). 하이에크는 경쟁은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 간섭 없이도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ㄴ).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ㄷ. 하이에크는 정부가 계획 경제를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5.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입장이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하나 되는 것이며 이는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영원법은 자연법의 근거이고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 6. 사르트르와 듀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사르트르이고, 을은 듀이이다. 듀이는 고정된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듀이에 따르면 도덕적 인간은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르트르는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듀이는 불변하는 고정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사르트르는 인간은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선택으로 실존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7. 흠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흠의 입장이다. 흠은 인간은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흠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 ② 흠은 이성이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여 정념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③ 흠은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흠은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인간은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시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8. 데카르트와 베이컨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데카르트이고, 을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연역해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베이컨은 새로운 학문 방법론으로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도(X)는 베이컨이 높다. 그리고 이성적 추론의 출발점으로 자명한 진리를 강조하는 정도(Y)는 베이컨이 낮다. 또한 개별 경험들로부터 일반적 원리의 도출을 강조하는 정도(Z)는 베이컨이 높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②, ④, ⑤ 데카르트에 비해 베이컨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9. 위정척사 사상과 동도서기론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이고, 을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는 성리학적 질서는 올바른 것[正]이므로 지켜야 하는 반면 서양의 문물과 기술은 사악한 것[邪]으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은 유교적 가치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器)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은 효제충신의 실천과 서양 기술 활용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 신기선이 이항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신기선은 동양의 도, 즉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기반으로 서양의 기술을 수용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①은 이항로가 신기선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② 이항로는 서양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②는 이항로가 신기선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③ 신기선은 유교의 근본이념을 버려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③은 신기선이 이항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④ 신기선은 유교의 인륜과 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④는 신기선이 이항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10. 벤담과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벤담이고, 을은 밀이다. 벤담과 밀은 옳은 행위란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ㄱ). 벤담과 밀은 공리의 원리가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정책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ㄴ).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ㄷ.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 ㄹ. 벤담과 밀은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행복의 총합이라고 보았다.

### 11. 맹자와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맹자는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아[求放心]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보았다(ㄱ). 또한 맹자는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ㄴ). 장자는 기(氣)로써 듣는다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ㄷ. 장자는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인 물아일체를 이상적 경지라고 보았다.

### 12.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입장이다. ㉠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하는 것이 아닌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강조하였다.
- ㉢ 칸트는 도덕 법칙을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라고 보았다.
- ㉣ 칸트는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며 도덕적 행위의 근거라고 보았다.
- ㉤ 칸트는 도덕적 의무의 이행과 행복의 추구는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의무가 문제될 때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 13. 갈통과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갈통이고, 을은 칸트이다. 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갈통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보았다.
- ③ 칸트는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각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각 국가가 평화 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주권을 평화 연맹에 양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⑤ 갈통은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로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되어야 실현된다고 보았다.

**14. 왕수인과 주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왕수인이고,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과 주희는 도덕 법칙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ㄷ). 왕수인과 주희는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는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을 주장하였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주희는 지가 먼저이고 행이 나중[先知後行]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지와 행이 본래 하나임[知行合一]을 강조하였다.
- ㄴ. 주희는 이치에 대한 궁구 없이는 치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15. 아우렐리우스와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고,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스토아학파는 공적인 삶과 의무를 도외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스토아학파는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스토아학파는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③ 스피노자는 신을 인격신이 아닌 자연 그 자체로 보았다.
- ⑤ 스토아학파는 운명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16. 석가모니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입장이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여덟 가지 올바른 길, 즉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ㄱ). 석가모니는 연기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석가모니는 내세뿐 아니라 현세도 자신이 지은 업(業)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

ㄹ. 석가모니는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17. 마르크스와 모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마르크스이고, 을은 모어이다.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사회이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① 마르크스는 노동을 생계 수단일 뿐이라고 보지 않았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마르크스는 분업은 정신적 능력을 쇠퇴시키며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 ③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에서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 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 사회는 계급과 국가가 사라진 사회이다.

### 18. 이황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이는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은 동일한 연원에서 유래하며 일반 감정인 칠정은 도덕 감정인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① 이황은 궁리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 ② 이황은 사단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 것으로 보았다.
- ③ 이이는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희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였다.
- ⑤ 이황에게 측은지심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정이며 인은 마음에 갖추어진 본성이다.

### 19. 홉스, 루소,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이고, 을은 루소이며, 병은 로크이다. 루소는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다고 보았지만 홉스는 절대 군주에게 입법권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홉스가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③ 루소는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루소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④ 로크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크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⑤ 홉스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홉스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 20. 페리클레스와 솜페터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 제시문은 페리클레스의 입장이고, 을은 솜페터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정치가이다. 페리클레스의 연설에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한 솜페터는 민주주의를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페리클레스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②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에서는 능력에 따른 정치 참여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않았으며, 노예와 외국인의 경우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 ④ 솜페터는 시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시민의 역할을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솜페터는 시민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시민이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